

문법이론들내에서의 통사적인 관계에 대한 다양한 기술에 대하여

이 민 행*

목 차

- I. 서 론
- II. X-형선 이론
- III. 의존문법에서의 지배소-의존소 관계
- IV. 범주문법의 수식사-수식대상 관계
- V. 결 론

I. 서 론

어떤 문장에서든 그 안의 모든 언어표현은 다른 언어표현들과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달리 말하자면 한 문장내에서 어떤 표현도 고립되어 있지 않다. 이 사실을 고려하기 위하여 전통적으로 문법이론에서는 구성관계(Konstituenz)와 의존관계(Dependenz)라는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다. 각 문법이론은 이 두 가지 개념의 기술을 위하여 독자적인 방법론들을 채택하고 있다. 구성관계의 직접적인 기술에 주안점을 두는가 아니면 의존관계의 직접적인 기술에 주안점을 두는가 는 문법이론에 따라 달라진다.

의존관계에 관한 한 다음의 질문들이 중요시 된다: 첫째, 의존관계개념을 초이론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둘째, 언어현상들의 기술에 있어서 의존관계개념을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필자는 위의 첫 물음을 근본주의적인 문제라고, 두번째 물음을 실용적인 문제라고 이름붙인다. 의존문법론자 자신들은 주로 근본주의적인 문제에 천착한다. 연구성과로서 그것들을 통하여 언어적인 표현들간의 내적인 관계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된 다양한 의존관계에 대한 검사방법들을 그들은 고안해낸다. 이와 반대로 새로운 생성문

*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Dept. of German Language & Literature, Cheju Univ., Cheju-do, 690-756, Korea)

법과 범주문법론자들은 오히려 실용적인 문제에 몰두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론이 갖고 있는 기술력(Beschreibungskraft)의 제약을 위한 새로운 방법들과 원리들을 만들어낸다. 근본주의적인 문제에 관련하여 그들은 의존관계에 대한 이론내적인 개념설정을 시도한다. 문법이론들은 문장이나 구내의 구성관계에 있는 각 구성성분간에 성립하는 의존관계들을 기술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개념을 사용한다. 비교적 새로운 문법이론들인 원리와 매개변항이론(PPT), 어휘기능문법이론(LFG), 일반구구조문법(GPSG)에서 채택하고 있는 X-횡선이론은 구성관계와 의존관계를 핵심어관계라는 개념으로써 설명한다. 이 경우에 구성관계는 명시적으로 기술되는 반면 의존관계는 암묵적으로 표현되어진다. 의존문법은 의존소-지배소 관계 개념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의존관계가 명시적으로, 구성관계는 암묵적으로 표현된다. 범주문법은 수식사-수식대상 관계를 설정하여 구성관계와 의존관계를 모두 명시적으로 기술한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문법이론들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개념정의들을 살펴보고 그들 상호간의 연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러 개념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일어 통사론의 교육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II. X-횡선 이론

X-횡선도식은 다음과 같다.

- (1) a. $X^2 \rightarrow \{수식어1\}\{수식어2\} \dots X'$
- b. $X' \rightarrow \{보족어1\}\{보족어2\} \dots X^0$

여기에서 X는 어휘적인 범주들인 N(명사), V(동사), A(형용사)와 P(전치사)와 기능범주들인 I(굴절어미), D(관사)를 가리킨다.¹⁾ 이 도식에 따라서 문장내의 단어들과 표현들은 세가지 종류의 상대적인 범주 곧 핵심어, 수식어나 보족어로 구분되어진다.²⁾ 도식(1. a)는 X²-층위의 표현이 X'-층위의 핵심어 표현과 그것의 수식어들로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성관계 외에 핵심어와 수식어들간에 의존관계도 성립한다. 도식(1. b)는 X'-층위의 표현이 X⁰-층위의 핵심어 표현과 그것의 보족어들로 구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핵심어와 보족어들 간에는 의존관계가 성립한다. 위의 도식에서 눈에 띄이는 것은 핵심어가 X⁰-층위뿐 아니라 X'-층위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인데 X⁰-층위에서는 어휘적인 핵심어로서 X'-층위에서는 투영된 핵심어로서 나

- 1) 원리와 매개변항이론에서는 굴절어미(Infl) 범주가 문장의 시제에 관한 정보와 주어와 정동사간의 일치에 관한 자질들을 지니는 것으로 가정된다. 그런데 굴절어미 범주가 일치자질을 지니고 있다는 가정은 다시 그 이론에서 동사가 주어물 하위범주화 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근거를 둔다. 그래서 굴절소 범주에 대한 그러한 특성화는 이론내적인 문제이다. 보다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필자는 굴절어미 범주를 시제범주(Tempus)와 일치범주(AGR)로 나누는 Pollock (1987)의 입장을 따르겠다. 언어중에는 일치범주가 중요하지 않은 언어가 있기 때문이다.
- 2) 영어권의 용어인 "specifier"가 독일어로는 "Spezifizierer"나 "Spezifikator"로 번역된다. 이 논문에서는 Vennemann의 용어인 Spezifikator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Spezifizierer를 사용한다.

타난다.

(1. a)와(1. b)에 제시된 X-횡선도식의 한가지 특성은 그 도식이 부분적인 표현들 간의 순서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곧 구나 단어들의 순서는 언어에 따라 다르거나 통사적인 범주에 따라 다른 것으로서 원리와 매개변항이론의 경우 핵심어 매개변항에 의해 정해진다.³⁾ 이제 개별적인 개념들에 주의를 돌려본다.

X-횡선이론에서는 모든 통사적인 구성체가 내심적이다. Bloomfield에 의하면 결과표현의 통사범주가 그것의 직접구성성분들 중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구성성분의 통사범주와 동일할 경우에 하나의 통사적인 구성체는 내심적이다. 예를 들어 (2)와 같은 문장도 Bloomfield와 달리 X-횡선이론에서는 내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2) Ein Auto fährt

X-횡선이론에 따르자면 문장 (2)에서 Ein Auto는 수식어이고 동사 fährt가 핵심어이다.

이제 보족어개념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보족어는 하나의 특정한 어휘적인 단어에 의해 어휘부안에 하위범주화되는 표현이다. 예를 들어 문장 (3)에서 전치사구 auf seine Freundin는 보족어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동사 wartet에 의해 어휘부안에서 하위범주화되기 때문이다.

(3) Hans wartet mit Geduld auf seine Freundin

이 예문 (3)에서 전치사구 mit Geduld는 하위범주화되지 않기 때문에 보족어가 아니다. 핵심어도 아니고 보족어도 아닌 표현들은 수식어로 불린다. 바로 이 정의에 의해 문장내에서 주어가 정동사에 대해 보족어가 아니고 수식어인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주어는 문장의 핵심어도 아니고 하위범주화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정의에 따라서 수식어는 X'-층위의 핵심어 옆에, 보족어는 X⁰-층위의 핵심어 옆에 나타난다. 이제 몇가지 예를 들어 수식어-핵심어/핵심어-보족어 관계를 설명한다.

(4) Das Auto fährt schnell.

(4)에서 schnell은 핵심어인 동사 fährt에 대한 수식어이다.

(5) Hans liebt Maria.

(5)에서 liebt는 핵심어이고 Maria는 보족어이다.

(6) Hans wohnt in München

(6)에서 in이 핵심어이고 München이 보족어이다.

3) 핵심어라는 개념이 Bloomfield (1933)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 X-횡선 이론도 Bloomfield에 연원한다고 할 수 있다.

(7) Das kleine Mädchen ist klug.

(7)에서 Das는 핵심어 kleine Mädchen에 대한 수식어이고 kleine는 핵심어 Mädchen에 대한 수식어이다.⁴⁾

(8) Fritz gab der Frau das Buch, das das Kind gesehen hatte.

문장 (8)에서 관계문장 das das Kind gesehen hatte는 핵심어 das Buch에 대한 수식어이다.

(9) da das Mädchen dem Kind den Teller gegeben hat.

(9)에서 조동사 hat는 핵심어이고 dem Kind den Teller gegeben이 그것의 보족어이다.

Ⅲ. 의존문법에서의 지배소-의존소관계

지배소/의존소의 용어들은 그의 통사론을 의존통사론으로 구상하였던 Tesnière (1959)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Tesnière에 따르면 모든 단어는 한 문장의 부분으로서 기능하는 한, 사전에서처럼 더이상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각 단어와 그것에 이웃하는 단어들 간에는 하나의 의존관계가 성립한다. 의존문법에서는 특정한 통사범주에 속하는 단어들이 특정한 다른 통사범주의 단어들에 대하여 채워져야 하는 빈자리들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 후자가 의존소, 전자가 지배소라 명명된다. 달리 표현하여, 지배소는 그것의 의존소들을 지배하고 의존소는 지배소에 의존한다.

Tesnière 자신은 의존관계의 결정을 위한 연산적인 기준의 제시를 포기함으로써 Vennemann (1977 : 270)이 비판하듯이 몇가지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⁵⁾ 어떤 구성성분이 지배소이고 어떤 구성성분이 의존소인가의 결정을 위하여 수많은 의존문법관계문헌에서 무수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유효한 결정적인 기준을 형식화하려고 시도한다. 의존관계 개념 내지 결합가 개념의 정의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 중 어떤 것도 오늘날까지 자기입장을 관철시킬 수 없었다.⁶⁾ 필자 자신이 이 와중에 개입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 대신 몇가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언어적인 표현들을 의존이론의 틀 안에서 기술할 수 있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여기서의 기술은 Hayes (1964)와 Matthews (1981)에 근간을 둔다. 다음의 예들을 보자.

4) Vennemann/Harlow (1977 : 249)에서 관사가 명사구의 핵심어로 간주된다. Haider (1988)와 Olsen (1989)와 같은, 명사구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도 관사가 명사에 대한 핵심어로 분석된다. 이 예에서 das가 핵심어이고 kleine Mädchen이 보족어이다. 그러한 이론들에서 전통적인 명사구가 관사구로 간주되고 그 이론들은 관사구분석입장으로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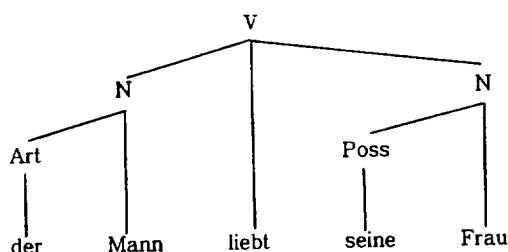
5) Vennemann에 따르면 의존관계상 보족어들이 상황어들보다 동사에 더 가깝고 보족어들과 상황어들내에서 각 그룹간에 위계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형식화하는 것을 Tesnière가 소홀히 했다고 비판한다.

6) 이런 맥락에서 Jacobs (1987)는 "결합가난십" (Valenzmisere)에 대해 얘기한다.

- (10) Der Mann liebt seine Frau.
- (11) Er ist seinem Vater ähnlich.
- (12) seine Teilnahme an dem Wettbewerb.
- (13) auf dem neuen Dache.

위 문장(10)에서 동사 liebt는 문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1격과 4격명사를 요구한다. 이 예에서 동사 liebt가 지배소로, 두 명사가 의존소로 불린다. (11)에서 형용사 ähnlich는 명사 Vater를 지배한다. (12)에서 명사 Teilnahme가 지배소이고 전치사 an이 의존소이다. (13)에서 전치사 auf는 명사 Dache를 지배한다.” 의존관계를 표현하기 위하여 의존수형도가 사용되는데, 다음의 (14)에 보여진 수형도는 위의 예문 (10)의 모든 의존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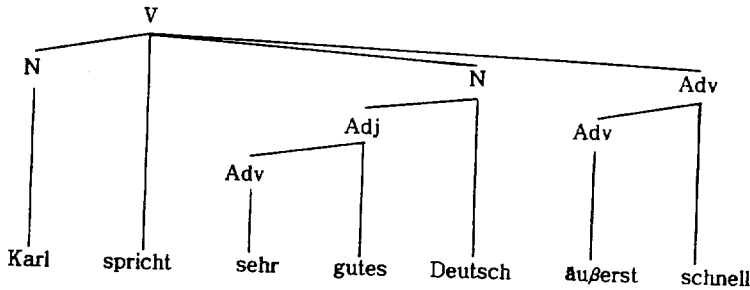
의존 수형도(14)에서 /나\로 나타내어진 가지들이 의존관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각 가지의 상위교점이 하위교점을 지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4)에서 주목할 점은 동사 liebt가 전체 명사구 der Mann이나 seine Frau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 Mann이나 Frau만을 지배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류의 의존문법의 약점은 Vennemann/Jacobs (1982: 100)에서 지적되어 있듯이, 구성성분구조에 대한 명시성을 결여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복합적인 부분표현에 대한 분류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14)에서 관사와 명사간에, 소유대명사와 명사간에도 의존관계가 성립한다. 이 경우 명사가 관사와 소유대명사에 대한 지배소로서 간주된다. 이 밖에 부가적인 형용사와 부사간에, 그리고 부사들 상호간에도 의존관계가 성립하는데 아래의 예문과 그에 대한 의존 수형도가 그러한 의존관계들을 잘 보여준다.

- (15) Karl spricht sehr gutes Deutsch äußerst schnell.

7) 이와는 달리 Tesnière (1969: 364ff.)는 전치사를 지배소가 아닌 전이소(Translativ)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다음의 예에서 전이소 von이 Alfred라는 명사를 형용사나 부사로 전이시킨다고 할 수 있다.

(예) Peter erhielt das Buch von Alfred.

(16)



여기에서 다시 한번 동사가 문장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의존문법이론의 근본가정에 대해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위의 (16)에서 보듯이 한편으로 동사와 명사간에 관계와 다른 한편으로 동사와 부사간의 관계가 아무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은 Hays가 제안하고 이 글에서 논의하고 있는 의존수형도가 갖는 문제점이다.”

이제 X-형선이론과 의존이론의 기본적인 생각들을 비교해보자. 지금까지의 논의에 의해, 수식어-핵심어/핵심어-보족어 관계와 지배소-의존소 관계 사이에 어떤 병렬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일반화시켜 얘기하자면, X-형선이론의 의미에서 모든 핵심어는 지배소이다. 보다 세분화하자면, 수식어-핵심어 관계가 성립한 경우 핵심어가 지배소로, 수식어는 보족어로 간주된다. 핵심어-보족어 관계의 경우에는 보족어가 의존소로, 핵심어가 지배소로 여겨진다. 그러나 접속사의 처리에서 두 이론간에 차이가 보여진다. Tesnière는 *daß*, *als*, *wenn*과 같은 접속사와 관계대명사를 전이소(Translativ)로 간주하는데, 그들의 기능은 특정한 통사범주의 한 표현을 다른 통사범주로 전이시키는 것이다.

(17) Ich glaube, daß es so geht.

(18) Die, die die Bäume beschädigen, werden belohnt.

X-형선이론에서 접속사와 관계대명사는 핵심어인 문장에 대한 수식어로서 여겨진다. 한편 *und*나 *oder*와 같은 등위접속사의 경우 의존이론에서는 다른 접속사들과 구분하여 연결사(Junktiv)로 취급한다. 이 연결사들은 동일한 통사범주들 사이에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의 연결사는 두 개의 명사구 사이에서(예, Die Menschen fürchten Hunger und Tod), 두개의 동사구 사이에서(예, Gib mir den Rhabarbar oder schneid ihn selbst) 혹은 두 개의 형용사구 사이에서(예, ein alter und weiser Mann) 나타난다. 아직까지 등위접속사들은 X-형선-이론에 의해 다른 연구는 없다. 그런데 이 접속사들이 독자적인 어휘기재항을 가지고 각기 특정한 표현들을 하위범주화할 수 있기 때문에 등위접속사들도 핵심어로 간주 될 수 있겠다. 물론 이때 그것들이 명사구들을, 형용사구들을, 전치사구들을, 혹은 문장들을 결합시키느냐에 따라서 *und*₁, *und*₂, *und*₃, *und*₄ 등으로 여러 유형의 접속사 범주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정리해서 표현하면, *und*, *oder* 등의 등위 접속사들은

8) 각주 5)에 있는 Vennemann의 비판을 다시 참고.

X-형선-이론에서 핵심어로, 그것들에 의해 결합되어지는 표현들은 보족어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19), (20)의 소위 “gapping”-구조는 일종의 생략현상(Ellipse)으로 처리될 수 있겠다. 문장내에서 어떤 문법범주가 생략되었는가 하는 것은 접속사의 어휘적인 속성에 비추어 예측할 수가 있겠다.

(19) Anna trinkt Wasser und Peter Wein.

(20) Hans kann Englisch sprechen und Peter Russisch.

IV. 범주문법의 수식사-수식대상 관계

각 구성성분들간의 의존관계를 범주문법이론의 틀안에서 Vennemann (1977)과 Vennemann/Harlow (1977)는 수식하는 표현인 수식사(Spezifikator)와 수식받는 표현인 수식대상(Spezifikat)간의 관계로 파악한다. 이 절에서는 바로 Vennemann의 수식사-수식대상 관계를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Vennemann의 이론이 하나의 새로운 구성성분으로 합하여지는 두 개나 그 이상의 구성성분들이 단순히 동등한 위치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의 위계적인 구조에 속한다고 본 점에서 X-형선이론이나 의존문법이론과 견해를 같이한다.

수식어-핵심어/핵심어-보족어 관계나 지배소-의존소 관계 대신에 Vennemann은 위계화된 구성성분들 간의 범주적인 조합을 모두 수식사-수식대상 관계로 분석한다. 수식사와 수식대상의 개념들은 핵심어, 보족어와 부가어(Attribut)의 정의에 토대를 둔다. 이들 상호간의 구분과 관련하여 하나의 형식적인 정의를 부여하기 위하여 Vennemann/Harlow (1977)은 다시금 범주문법을 끌어들인다. 범주문법에서는 언어적인 표현들의 두 가지 기본적인 범주적인 조합가능성, 곧 두 가지 유형의 술어-논항관계가 가정된다.

(21) i. $X/Y * Y \rightarrow X$, 이때 $X = 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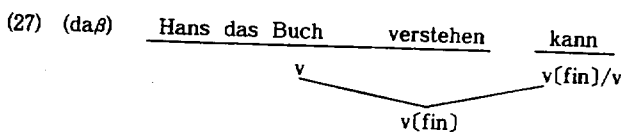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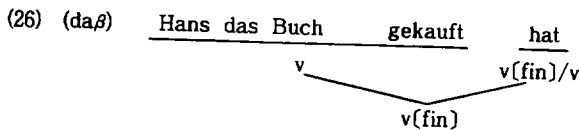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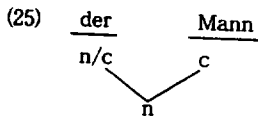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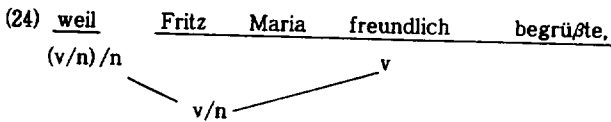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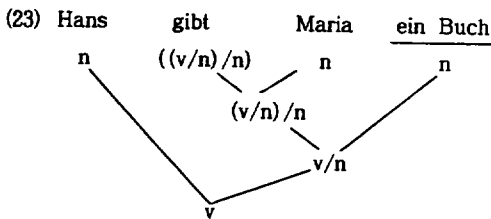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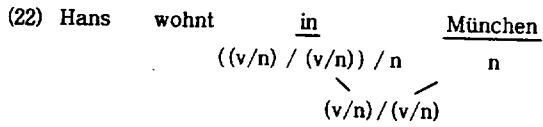
ii. $X/Y * Y \rightarrow X$, 이때 $X \neq 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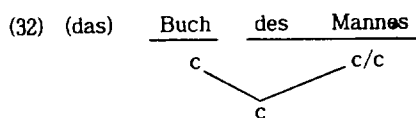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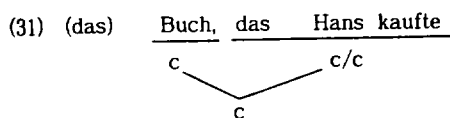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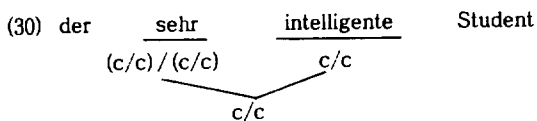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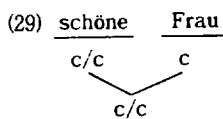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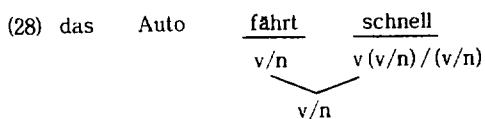
위 도식의 X나 Y는 c(보통명사), n(고유명사나 명사구) 혹은 v(동사) 등의 기본범주이거나 이 기본범주들로 부터 유도된 v/n(자동사), c/c(형용사), n/c(관사) 등등의 유도범주이다. 일반적으로 범주문법에서 X/Y범주의 표현은 Y범주의 표현과 결합하여 그 결과범주로서 X를 내놓는다. 위 (21. i)과 (21. ii)에서 보는 바와 같이 X와 Y가 동일한가, 상이한가에 따라서 두 가지 조합규칙이 도출된다. (21. i)에서는 X/X 유형의 범주와 X범주간의 결합을 나타내는데 이 경우 X/X 범주를 가진 표현이 부가어로, X범주를 가진 표현이 핵심어로 정의된다. (21. i)에서는 X와 Y가 동일하지 않는 X/Y 유형의 범주와 Y범주간이 결합하여 X범주가 결과되는 것을 보인다. 이 경우 X/Y를 가진 구성성분이 핵심어로, Y범주의 구성성분이 보족어로 정의된다. (21)에서 부분표현들간

9) 여기에서는 Jacobs (1982 : 67ff.)에서 형식화 되어 있는 자질이 명세화된 범주문법을 사용한다.

의 순서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 이 어순은 언어마다 범주마다 다를 수 있고 임의적일 수도 있다. 이제 수식사-수식대상 관계의 정의를 살펴보자. 한 표현이 다른 표현의 부가어나 보족어일 경우 후자는 전자에 대한 수식사이고 후자는 전자의 수식대상이다. 보다 명시적으로 형식화해서 우리는 두 가지 유형의 수식사-수식대상 관계를 구분할 수 있다. 한 가지 유형은 부가어-핵심어 관계로서의 수식사-수식대상 관계인데 이 경우 부가어가 수식사가 되고 핵심어가 수식대상이 된다. 다른 유형은 핵심어-보족어 관계로서의 수식사-수식대상 관계이며 이때 핵심어가 수식대상이고 보족어가 수식사이다. 후에 이 관계들을 다시 언급할 때 지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여기서 두 번째 유형의 수식사-수식대상 관계를 수식관계 1 (Spezifikationsrelation 1)로, 첫 번째 유형의 수식사-수식대상 관계를 수식관계 2 (Spezifikationsrelation 2)로 명명하겠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논의를 다음의 예를 들어 구체화해 볼 수 있다. 예문 (22)-(27)에서는 수식관계 1이, 예문 (28)-(32)에서는 수식관계 2가 나타나 있다.”





위에서 구체화된 수식관계들을 Vennemann (1977)과 Vennemann/Harlow (1977)에 제시된 바 대로 나열해보면 다음의 표 (33)과 같다.¹⁰⁾

(33)

수식사	수식대상	수식관계의 유형
주어, 목적어	동사	수식관계 1
부사	동사	수식관계 2
본동사	조동사	수식관계 1
본동사	화법조동사	수식관계 1
보통명사	관사	수식관계 1
형용사	보통명사	수식관계 2
관계문장	보통명사	수식관계 2
2격명사구	보통명사	수식관계 2
부사	형용사	수식관계 1
명사구	전치사	수식관계 1
핵문장	접속사	수식관계 1

이제 수식관계 1, 수식관계 2와 X-형선이론 간의 관계를 살펴보자. 몇몇 예외가 있긴 하지만

10) Vannemann (1974 : 345)과 Krifka (1983 : 15) 참고

수식관계 1은 X-형선이론에서의 핵심어-보족어 관계에 상응하고 수식관계 2는 X-형선이론에서의 수식어-핵심어 관계에 상응한다. 주어와 동사간의 관계와 관사와 명사간의 관계는 예외에 속한다. 주어와 동사간의 관계의 경우 X-형선이론에서는 수식어-핵심어 관계로 간주되는데 수식이론에서는 수식관계 1로 파악된다. 수식이론에서 수식관계 1로 간주되는 관사와 명사간의 관계인 경우 전통적인 X-형선이론에서는 관사가 핵심어인 명사의 수식어로 여겨졌는데, 최근에 관사를 핵심어로, 명사를 보족어로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 터이다. 이 입장에 설 경우 앞서 논의한 일반화가 관사와 명사간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V. 결 론

앞선 여러 절에서 논의한 바를 요약하는 의미에서 X-형선 이론, 의존문법이론과 범주문법이론에서 쓰이는 다양한 개념들 간의 상호 관계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34)와 같다. 이 경우 앞서의 논의 가운데 예외로서 언급된 표현들내의 관계는 제외된다.

(34)

수식어 - 핵심어	X-형선이론	보족어 - 핵심어
의존소 - 지배소	의존문법	의존소 - 지배소
수식사 - 수식대상 (수식관계 2)	범주문법	수식사 - 수식대상 (수식관계 1)

끝맺음을 대신하여, 수식관계와 대립되는 개념인 공수식관계(Kospezifikationsrelation)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자 한다. 보통 우리가 한 언어의 자유어순에 대해 얘기하면 그것은 바로 상호간에 수식관계에 있지 않는 표현들에 국한된 진술이다. 이러한 관찰이 바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게 된 동기이다. 그것이 문장이든 하나의 구이든 한 표현내에서 특정한 부분 표현들간에 수식관계와 다른 관계가 성립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 (35) a. daß Hans gestern wegen der Erkrankung nicht in die Schule gegangen ist,
 b. daß Maria dem Kind das Buch gab,
 c. lange, schöne, blonde Haare

위 (35. a)에서 표현들 gestern, wegen der Erkrankung, in die Schule 간에는 수식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35. b)에서 Maria dem Kind, das Buch 간에 수식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35. c)에서 lange, schöne, blonde 간에 수식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35. a), (35. b), (35. c) 안의 해당표현들이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그룹안의 모든 요소가 각각 하나의 수식대상과 — 곧 (35. a)에서 gegangen, (35. b)에서 gibt, (35. c)에서 Haare — 수식관계에 있다는 사실이다. 한 표현 내에서 공통의 수식대상을 가지면서 통사범주가 동일한 부분 표현들간에

성립하는 관계가 바로 공수식관계이다. 어순과 관련한, Greenberg이래 이제까지의 보편연구(Universalienforschung)는 사실상 모두 수식관계에 대한 것이고 자유어순에 대한 거의 모든 논의는 공수식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수식관계와 공수식관계를 명시적으로 구별짓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Bartsch, R. und Th. Vennemann. 1972. Semantic Structures : a study in the relation between semantics and syntax. Frankfurt am Main.
- Baumgärtner, K. 1970. Konstituenz und Dependenz. In : H. Steger (Hrsg.), Vorschläge für eine strukturelle Grammatik des Deutschen. Darmstadt. 52~77.
- Bouma, G. 1988. Modifiers and specifiers in categorial unification grammar. In : Linguistics 26. 21~46.
- Bresnan, J. (Hrsg.). 1982.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Grammatical Relations. Cambridge (Mass.).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 Chomsky, N. 1986. Barriers. Cambridge (Mass.).
- Gazdar, G., E. Klein, G. Pullum und Ivan S. Sag. 1985. 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 Oxford.
- Haider, H. 1988. Die Struktur der deutschen NP. In : Zeitschrift für Sprachwissenschaft 7.1. 32~59.
- Hays, D.G. 1964. Dependency Theory : A Formalism and Some Observations. In : Language 40. 511~525.
- Jacobs, J. 1982. Syntax und Semantik der Negation im Deutschen. München.
- Jacobs, J. 1987. Kontra Valenz. Ms. München.
- Krifka, M. 1983. Zur semantischen und pragmatischen Motivation syntaktischen Regularitäten - Eine Studie zur Wortstellung und Wortstellungsveränderung im Swahili. München.
- Matthews, P. 1981. Syntax. Cambridge.
- Olsen, S. 1989. Das Possessivum : Pronomen, Determination oder Adjektiv? In : Linguistische Berichte 120. 120~153.
- Park, J.G. 1981. Probleme der kontrastiven deutschen und koreanischen Grammatik. München.
- Pollard, D. und Ivan A. Sag 1988. An Information-Based Theory of Agreement. CSLI

- Report. Stanford University.
- Pollok, J.Y. 1989. Verb Movement, Universal Grammar, and the Structure of IP. In : Linguistic Inquiry 20. 364~424.
- Preuß, S. 1987. GPSG-Syntax für ein Fragment des Deutschen. KIT-IAB 20. TU-Berlin.
- Tesnière, L. 1969. Eléments de syntaxe structurale. 2. Auflage. Paris. (Deutsche Übersetzung von U. Engel: Grundzüge der strukturalen Syntax. Stuttgart. 1980.)
- Vennemann, Th. 1973. Warum gibt es Syntax? In : Zeitschrift für Germanistische Linguistik 1. 257~283.
- Vennemann, Th. 1977. Konstituenz und Dependenz in einigen neueren Grammatiktheorien. In : Sprachwissenschaft 2. 259~301.
- Vennemann, Th. und R. Harlow. 1977. Categorical grammar and constituent basic VX serialization. In : Theoretical Linguistics 4. 227~254.
- Vennemann, Th. und J. Jacobs. 1982. Sprache und Grammatik. Darmstadt.

Summary

Über Die Verschiedenen Beschreibungsmethoden der Syntaktischen Relationen

Min-Haeng Lee

In dieser Abhandlung wurden verschiedene Beschreibungsmethoden der syntaktischen Relationen in gängigen Grammatikparadigmen vorgestellt und verglichen.

Die Ausdrücke in jedem Satz stehen in engem Zusammenhang zueinander. Mit anderen Worten, kein Ausdruck muß innerhalb eines Satzes als isoliert betrachtet werden. Um dieser Tatsache Rechnung zu tragen, wird in der Tradition des Grammatikformalismus von den beiden Begriffen Konstituenz und Dependenz Gebrauch gemacht. Jeder Grammatikformalismus stellt seine eigenen Konzepte bzw. Methoden für die Beschreibung der beiden funktionalen Kategorien zur Verfügung. Je nach dem Formalismus liegt der Schwerpunkt auf der direkten Darstellung der Konstituenz oder der Dependenz. Die Dependenzgrammatiker selbst befassen sich vorwiegend mit der Definitionsfrage des Begriffs "Dependenz". Als Ergebnisse haben sie viele Ermittlungstests entworfen, durch die man neue Erkenntnisse über die inneren Beziehungen zwischen den sprachlichen Ausdrücken gewinnen konnte. Im Gegensatz dazu beschäftigen sich die generativen und die Kategorialgrammatiker eher mit der praktischen Verwendung des Begriffs "Dependenz". Hinsichtlich der Definitionsfrage entscheiden sie sich dafür, eine theorieinhärente Definition anzusetzen. Die Relationen Konstituenz und Dependenz erfaßt die X-bar-Theorie, die in den neueren Grammatikformalimen, nämlich "Prinzipien — und Parameter — Theorie" (PPT), "Lexical functional Grammar" (LFG) und "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 (GPSG) eingesetzt ist, mit dem Begriff Kopf-Relation. Hierbei wird die Konstituenz explizit und die Dependenz implizit dargestellt. Die Dependenzgrammatik (DG) verfügt über den Begriff der Dependenz-Relation. In der DG wird Dependenz explizit, aber Konstituenz implizit dargestellt. In der Kategorialgrammatik (KG) werden sowohl Konstituenz wie Dependenz explizit dargestellt. Der Begriff Spezifikationsrelation ist in Vennemann (1977) und Vennemann/Harlow (1977) analog zur Funktor-Argument-Relation in der Kategorialgrammatik dafür zuständig. Im Laufe der Diskussion wurden drei Arten von Begriffspaaren ausführlicher verglichen. Dabei konnte es festgestellt werden, daß

zwischen den in den verschiedenen Grammatikformalismen eingesetzten Begriffen folgende Zusammenhänge bestehen würden.

Spezifizierer - Kopf Dependens - Regens Spezifikator - Spezifikat (Spezifikationsrel. II)	X-bar-Theorie DependenzGr. KG	Komplement - Kopf Dependens - Regens Spezifikator - Spezifikat (Spezifikationsrel. I)
--	-------------------------------------	--